

## 급속히 감소하는 양돈농가 대책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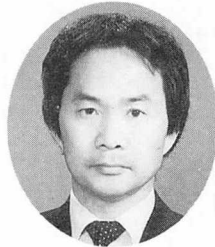
최근 양돈산업의 구조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소수양돈농가에 의한 다두사육 현상이 일정 사육규모 이상에서 지나친 표출로, 이는 심각한 경제적 의미와 양돈산업의 미래에 대한 경고싸인이 아닐 수 없다. 일정규모에 지나친 편중은 소수의 기업형 양돈가에 의하여 과점적 지배를 받게 될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추세는 경제논리의 당연한 귀결이지만, 다수 양돈농가의 보호와 생산기반의 저변유지라는 사회·경제적 측면이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축산업의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여 기술수준의 향상, 사육의 집단화와 권역화, 기업화, 지역의 형태화 등이 중요한 과제이지만,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수농가에 의한 다두사육체제와 어느 규모를 양돈산업 미래의 주력규모로 육성시킬 것인가」는 심려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여기에는 사육농가, 생산자단체, 관련단체, 정책당국 모두의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양돈산업의 변화를 보면, 총두수는 1994년 6월 5,783천두로 1987년 이래 연평균 5.3%가 성장한 반면, 사육농가는 59,272호로 연평균 20%나 감소하였다.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 1988년 이후 규모확대가 뚜렷하게 진전되면서 대규모 생산체제로 지향하고 있는데, 1천두 이상을 사육하는 양돈농가가 1988년 306가구였으나 1994년 6월 현재 696가구로 2.3배나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사육규모의 대형화 과정에서 도태되는 영세한 양돈농가들에 대한 합리적 대책의 수립이 요망된다.

돼지 사육규모별 돼지 생산에 대한 공헌도는 1988년에는 500두 이상을 사육하는 0.39%의 가구가 전체의 29.5%의 돼지를 사육한 반면에, 1994년에는 4.6%의 가구가 전체의 51.8%의 돼지를 사육하여 공급공헌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에 99두 이하를 사육하는 97.4%의 가구가 전체의 43.6%의 돼지를 소유한 반면에, 80%의 가구가 전체의 89.4%의 돼지를 사육하여 공급할 정도로 공헌도가 크게 떨어져 돼지의 사육구조가 현저하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사육농가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500~999두 규모의 경우 1988년에 0.38%의 가구가 20.7%의 돼지를 사육한 반면, 1994년에는 4.5%의 가구가 44%의 돼지를 사육할 정도로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구조변화가 가장 극심한 규모는 500~999두로 적자생존력이 뛰어난 사육규모로 모돈 50두정도의 부부중심 경영형태가 주력공급체제가 입증되고 있다.

이와같은 사육규모의 진전추세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규모를 6,000천두로 가정하여 호



정찬길

(건대 축산경영학과 교수)

당 평균 사육두수 100두일 경우 60천가구, 200두일 경우 30천가구, 300두일 경우 20천가구면 충분하다. 또한 모든 1두당 연평균 비육돈 출하두수 16두를 기준하여 1993년말 돼지의 가격수준으로 5,927두 사육에 도축두수 9,678천두이므로 모든 100두 규모이면 6,000가구, 모든 500두 규모이면 1,200가구, 모든 1,000두 규모이면 600가구에 의해서 돼지고기의 완전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양돈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의 수립에 이와같이 예견되는 사육농가의 소수화와 다수가구의 탈락이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50~100두 규모의 완전 가족농의 부부중심 농장의 육성이 정책대안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양돈산업은 이미 장기간에 걸쳐 산업자체가 적자생존(適者生存) 생산체제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생산효율성이 높은 경영규모로 스스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제는 전체 산업이 전·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과 사육가구의 측면에서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영세한 돼지 사육농가들에 대한 대책을 축산물의 전면수입개방 이전에 실천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육규모의 변화를 방임한채 획일적으로 정책이 적용되면 예상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여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현재의 경영구조하에서 양돈농가는 앞으로 전개될 축산업의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그 사육구조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편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사육규모만을 변수로 가정할 때 500~999두 규모가 가장 생존력이 강한 적정 경영규모로 판단되어 이 규모가 주력경영규모로 육성되도록 생산기술뿐 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돈경영구조는 자생력이 강하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예견되는 500~999두 사육규모를 육성하고, 이를 통한 양돈산업 구조조정과 이 규모의 정착을 위한 전략으로 500~999규모 10~30가구 중심의 대규모화로 선진기술도입에 의한 경영관리체제, 시설자동화, 단지화와 전문화로 생산·가공·유통·분노처리시설의 연대이용 체계구축 등이 생산자조직을 주축으로 계열화 체제로 진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고정자본채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 양돈경영의 인력난 극복을 위한 인력 양성과 노동의 전문화를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정책선택에 있어서 이 점을 명심하고, 모든 재정·금융지원이 이러한 시각에서 집중되어야 한다.